

1990년대 한국 노동가요의 변화와 의미에 관한 고찰 -일상가요·서정가요·풍자가요를 중심으로-

박세원, 홍성규*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A Study on the Changes and Meaning of Korean Labor Protest Songs in the 1990s, Focusing on Daily·Lyrics·Satire Songs

Se-Won Park, Sung-Kyoo Hong*
Dept of Post Modern Music, Kyunghee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1990년대 노동가요의 주제와 음악적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목적'이 있는 노래'로서의 노동가요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고 노래의 독립적인 주제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가사와 음악 요소의 분석을 통해 그에 내장된 주제 의식과 음악적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먼저 가사에서는 투쟁가가 주를 이루던 이전의 노동가요와는 달리 노동자들의 일상을 그리거나 사랑을 노래하는 서정적인 특징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또한 현실사회와 정치를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곡이 새로 제작되어 개사곡에서 그쳐졌던 이전의 노동가요에 비해 확연하게 풍자적인 내용을 띠는 주제 의식 또한 관찰할 수 있었다. 음악적인 특징으로는 대다수 단조 행진곡풍의 노래였던 이전에 비해 발라드나 트로트같은 대중가요풍의 장르가 새로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장르와 음악 스타일의 변화와 더불어 가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선율적 장치 또한 분석해 봄으로써 그 의미를 고찰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노동가요에서의 일상공간 수용과 대중가요적 요소 차용은 노동자들의 삶을 영위하는 방식과 사회적 배경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로써 그들의 문화 전반을 내포하게 되었음에 변화적 의미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노동가요의 변화 양상을 단순히 가사와 음악 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노동자들의 의식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 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ical meaning of labor protest songs as a "song with a purpose" to establish the independent subject and identity of the songs, focusing on the theme and musical changes in labor songs in the 1990s. Therefore, the theme consciousness and musical characteristics embedded therein were examined by analyzing the lyrics and music elements. First, in the lyrics, unlike previous labor protest songs, which were dominated by struggle songs, the lyrical characteristics of drawing laborers' daily lives or singing love could be confirmed.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observe the theme consciousness that was satirical compared to the previous labor protest songs, which were stopped in the opening song because of the new production of songs that criticized real society and politics. As a musical characteristic, it can be seen that popular music genres, such as ballads and trot, have been newly popularized compared to the past when most of them were forged march-style songs. Along with these changes in genre and music style, the meaning could be considered by analyzing the melodic device for effectively delivering lyrics. The acceptance of daily space and borrowing of popular song elements in labor songs represent the way and social background of the laborers' lives. It is of transformative significance that it has included their entire culture.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study focusing on understanding the consciousness and culture of laborers, not just ending from the perspective of lyrics and music.

Keywords : Labor Protest Songs, Laborer, Social Resistance, Lyrics Analysis, Music Analysis, Popular Music

*Corresponding Author : Sung-Kyoo Hong(Kyunghee Univ.)

email: Hong@khu.ac.kr

Received November 14, 2022

Accepted January 6, 2023

Revised December 12, 2022

Published January 31, 2023

1. 서론

한국의 노래운동은 1980년대를 중심으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권위주의적 정부의 독재와 탄압에 대항하는 민중의 저항운동은 노동자와 대학가의 학생들, 농민 등의 목적이 있는 서민 대중을 주축으로 전개되었다. 그중 노동집단은 급진적인 산업화에 결부된 열악한 노동조건과 한계 이하의 임금을 강요받았고 이에 반한 목소리를 높이며 맞서 저항했다. 해당 시위의 전면에 앞세워진 노래는 전국 각지에 울려 퍼지며 주체의 의식을 피력하는 도구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메시지가 담긴 노래는 단순한 개인의 의식만이 아닌 집단 내면의 움직임 통하여 연대감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1]. 외부에서의 자극으로 비롯된 감동이 의식으로 발현되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이에 가사와 음악적 요소가 차용되어 만들어진 '노래'는 노동집단에서 또한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의식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어 이를 대변하는 산물로 자리매김했다.

노동가요는 사용자 및 권력에 대항하여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제고를 위한 목적이 있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로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에 걸쳐 전개된 노동자 대투쟁을 기점으로 발전기를 맞이하였다. 폭발적인 제작과 공급으로 노동자가 주체가 된 채 의식을 고취시키는 노래가 대량으로 등장하였고 조합의 결성과 더불어 전문 노래패가 형성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2]. 이는 1988년부터 점차 과열되기 시작하여 1990년도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만들어지며 그들의 문화를 구축해나갔다. 이러한 흐름은 새로운 형식의 노동가요가 등장하며 그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에 노동가요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장르의 변화이다. 노동쟁의의 현장에서 투쟁을 목적으로 사용되어 행진곡풍이 주를 이뤘던 이전의 노래와는 달리 대중적 스타일이 등장하며 변화적 양상을 보였다.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은 일상가요와 정치 풍자적 내용을 담은 풍자가요, 감수성을 매개로 하여 삶의 애환과 사랑, 추모 등을 노래하는 서정가요가 등장하면서 노동자들의 일상을 사회적 욕구와 의식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3]. 이는 노동가요의 인식과 음악사적 흐름을 뒤바꾸고 새로운 향방을 제시하는 핵심적 틀이 된다. 이는 운동권 노래에 대한 편협적 사고를 타파하고 대중성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음에 따라 향후 발전 가치를 논할 수 있어 그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명확한 특성과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의 노동가요는 민중가요의 일부분에 속하여 그 정체성을 확보함에 미흡하였다. 물론 '민중'이라는 개념 자체에서부터 범위를 설정하여 해당 주축인 노동자, 농민 및 운동권 학생들이 민중가요의 창작·수용층이 되겠으나, 노래의 주체를 보았을 때 실질적인 주제 의식과는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4]. 노동가요의 주체는 노동자이다. 노동 현장에서 벌어진 결집이 의식으로 표출되고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과정에 발생한 노래로 더욱이 주제 의식을 구분하여 주체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1994년에 발간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의 노래책인 『희망의 노래 3』에서 노동가요와 민중가요를 구분함으로써 주체를 확립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를 민중가요의 범주 내에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5].

불운의 시대를 거쳐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노동가요가 편협적 잣대를 피할 수 없는 부정적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음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까지도 노동운동은 지속적이며 그 현장에서는 다소 격양된 성향과 함께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고 이에 동반된 대다수 노래 또한 비제도적인 모습을 보인다[6]. 그러나 이러한 쟁의의 전반적인 목적은 생명에 직면한 노동조건 개선에서 비롯된다. 급진적인 산업화를 거치며 근대화를 이룩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노동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0년, 포항 제철 공장의 노동자가 추락하여 1600도의 용광로에 빠져 사망하였고 이를 추모하고자 시인 제페토가 쓴 시 〈그 쇠물 쓰지 마라〉를 가수 하림이 노래로 만들어 세상에 선보였다. 해당 노래는 '부르기 챌린지'를 통해 그 실정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며 큰 파동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쟁의를 위한 기존의 노동가요 외에도 그들의 애환을 알리며 대중성을 띤 노래가 지속된다면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가요에 대중성이 등장하기 시작한 1990년대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 변화 요인을 음악 분석을 통해 명밀히 관찰해봄으로써 그 의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의 시대적 범위를 변화의 기점으로 보는 1990년대를 중심으로 설정하여 그 흐름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전노협에서 편찬한 노동가요 노래책 총 4권에 수록된 일상가요·서정가요·풍자가요 18곡을 연구의 대상으로 특정하였다. 이에 설정한 18곡은 다음과 같다.

Table 1. Songs to be Studied: Daily·Lyrics·Satire Songs in the 1990s

Genres	Title	Composer
Daily Lyrics Songs	Yeobo Jeongmal Sarang Haeyo (여보 정말 사랑해요)	Kim Min-ha
	Pojangmacha (포장마차)	Kim Ho-chul
	Kkeutnae Salira (끝내 살리라)	Kim Ho-chul
	Kkottdaji 1 (꽃다지 1)	Kim Ho-chul
	Kkottdaji 2 (꽃다지 2)	Kim Ho-chul
	Chamsarang (참사랑)	Kim Ho-chul
	Bumonimkke (부모님께)	Kim Ho-chul
	Jinjja Nodongja 3 (진짜 노동자 3)	Kim Ho-chul
	Sang-il Norae (생일노래)	Kim Ho-chul
	Sarang-gwa Hangbok (사랑과 행복)	Kim Ho-chul
	Yeolsa-eui geu Tteutdaero (열사의 그 뜻대로)	Kim Ho-chul
	Junhwa-card Han Jang (전화카드 한 장)	Cho Min-ha
	Woori-eui Noraega ee Geuneuljin Ttang-eh Haetbyut Hanjum Doilsu Itdamyun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햇볕 한 줄 될 수 있다면)	Baek Chang-woo
	Jeo Pyungdeung-eui Ttang-eh (저 평등의 땅에)	Ahn Chi-hwan
Satire Songs	Gerkuro Doraganeun Sesang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Lee Gun
	Daldongne-eh Bupun Kkum (달동네에 부푼 꿈)	Lee Gun
	Youngsami-eui Ilgi (영삼이의 일기)	Kim Ho-chul
	1No2Kim-ga (1노2김가)	Kim Ho-chul

앞의 표에 명시된 연구 대상 18곡은 민중가요와 노동가요 작곡가인 김민하, 김호철, 백창우, 안치환, 이건의 작품으로 모두 일상과 서정성, 사회 비판 등을 다루는 노래이다[7]. 특히 대다수 노래가 김호철의 작품임을 알 수 있는데, 그는 노동가요의 최대 작곡가로 실제 한국 노동가요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인물로 알려진다[8].

본 논문은 위 노래의 가사를 분석하여 주제와 소재를 파악하고 이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인 음악의 장르와 스타일, 선율 등의 음악적 요소를 통해 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해당 변화적 요인을 통하여 노동가요의 대

중화를 모색하고 노래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한국 노동가요의 정의와 의의

노동가요의 일차적 정의는 사용자 및 권력에 대항하여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그들에게 향유되는 노래이다.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대상과 주체가 명확하고 그 안에는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노동가요는 그 명칭과 개념을 성립하는 데 있어 시대의 과도기를 거쳤다. 한국에서 최초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파업과 노래가 동반된 노동운동이 일어난 것은 식민지 시대로 보는데, 당시 문헌들에서 ‘저항가’, ‘목적이 있는 노래’, ‘노동자 계급의 노래’가 발견되어 명확한 정의 이전의 관련 명칭들을 알 수 있다[9]. 이후 ‘운동가요’, ‘저항가요’, ‘운동권가요’, ‘투쟁가’, ‘쟁의가’, ‘데모가’ 등 여러 명칭을 거쳐 1993년 처음 노동가요라는 개념이 성립된 것으로 보여진다[10].

노동가요의 정의는 주체와 향유층을 구분하는 데 있다. 오늘날까지 노동가요가 민중가요의 하위 범주로 다루어지는 근원은 민중이라는 주체적 개념으로부터 시작된다. 민중은 역사 속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파악되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계급·계층·시민 등 여러 대상을 포용하는 상위개념이며 노동자 또한 해당 범주의 주축이 된다[11]. 이렇듯 민중가요는 다원적 향유층을 주체로 하고 있어 그 의미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일한 대상으로 특정되는 노동가요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전노협이 노래책 『희망의 노래 3』의 서문에서는 “민중가요와 노동가요”, “민중적 정서, 노동자적 정서”를 서술하여 각기 다른 개별적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주체를 구분하였고 두 대상을 독립적인 존재로 나누었다.(전노협, 1994) 이와 같이 민중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아닌 노동자라는 개별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여 노래의 주체와 향유층의 구별을 통해 개념적 정의가 더욱 확실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래의 향유층은 곧 문화를 수용하는 사회적 집단이다. 문화는 학습에 의해서 소속하는 사회 즉 협동을 학습한 사람들의 집단으로부터 생성된다[12]. 이영미는 생활을 공유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함께 할애하는 집단이 문화를 수용한다고 하였으며 노동조합 등의 집단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구축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화를 인지하기 이전에도 이미 집단화되어 스스로 창출하는 자발적인 능력이 있다고 여겼다. 이어서 노동가요를 노동자 대중 스스로 선택한, ‘노동자들을 위한 노래’라 언급하였다[13]. 집단의 공동체 삶을 영위하는 방식과 이에 비롯된 사상이 노래로 드러나는 것은 개인의 의식 차원만이 아닌 감동을 통한 집단의 의식 발현으로 볼 수 있어 사회적 의의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노동가요를 노동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수용하고 그들의 연대적 의식과 문화를 포용한 ‘삶의 노래’라 정의해 보고자 한다.

2.2 1990년대 한국 노동가요의 시대적 흐름

대학가의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1980년대를 중심으로 발전기를 맞았던 민중의 사회저항운동은 후반에 이르며 다양한 계층을 통해 확산되었다. 민중운동의 전면에 내세워진 노래는 계층의 분리와 함께 변혁이 이루어졌고 노동자를 주축으로 한 노동가요 또한 이를 기점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1990년대까지를 발전의 중심으로 보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쟁의와 조합 결성, 집단교섭으로 활성화된 노동운동을 통해 계급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더불어 변화한 노동가요의 양상과 사회적 의미를 관찰할 수 있는 주요 시기로 보여진다.

2.2.1 1980년대 한국 노동운동의 배경

먼저 1990년대 한국 노동가요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80년대 노동운동 양상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1980년대 노동운동 양상은 크게 제5공화국의 권력이완기인 1987년 전반기와 이후 동년 7월에 발생한 노동자 대투쟁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중심으로 80~83년까지를 침체기, 84~87년 전반기까지를 점진적 발달기, 대투쟁부터 89년까지를 급속한 폭발과 성장기, 이후 90년대를 국가의 공세에 의한 노동운동의 외면적 수축기와 내부적인 결속 강화기로 불리며 시대적 흐름과 특징을 갖는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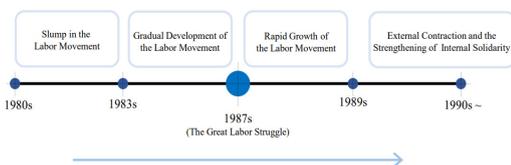


Fig. 1.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Labor Movement from 1980 to 1990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mes

87년 이전 제5공화국은 자본축적을 목적으로 억압적인 노동통제 정책을 구사하며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배제했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단체교섭에 있어 행정관청의 간섭을 강화하여 단체행동권을 제한하였다. 이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노동삼권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기본적인 권익조차 제고 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한 임금가이드라인과 최저임금제도 등으로 노동조건을 향한 대대적인 통제 전략을 내세웠다[15].

노동자들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 한계에 다다른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조건, 강압적인 권익 침탈에 저항하는 목소리는 6.29선언 이후 개방된 정치적 허점을 파고들어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산하였다. 1987년 7월 현대엔진 노동조합의 결성에 성공하게 되면서 이로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쟁의와 파업은 독점대기업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약 두 달간 전개되었던 노동자 대투쟁은 정부의 물리적 개입과 이데올로기 공세의 강화로 점차 제지될 때까지 폭발적인 파업투쟁이 전개되었으며 이에 참여한 노동자 연인원은 2백만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3,300건의 파업 건수, 1,200여 개의 신규노조 결성 등으로 최대규모의 노동운동을 이룩하였다[16].

이전의 투쟁이 노동조건에 대한 분노와 울화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면 노동자 대투쟁 시기 이후로는 조직적인 움직임과 사회적 조건이 수반되어야만 지속적인 저항이 가능함을 깨닫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된 시기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통제정책에 동반되는 기업노조의 결성보다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문화를 수용하고 세력화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되었는데 이는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건설로 이어지며 민주노조설립의 연원이 되었다[17].

2.2.2 1990년대 한국 노동가요의 변화

대투쟁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노동운동은 체계적인 조직 구조와 함께 조합의 기반을 구축해나가기 시작했다. 이 시기 지속된 쟁의는 ‘투쟁의 일상화’를 통해 고착되었고 노동가요 또한 대규모의 제작과 보급이 이루어졌다. 노총의 설립과 격한 투쟁의 시기로 주로 농성에서 불리었던 노래답게 투쟁가 형식이 다수 출현하였으며 그중 특히 단조 행진곡이 대다수 나타났다. 이러한 단조 행진곡 형식의 노동가요는 이전의 음악적 양상과는 큰 차이

를 보이지 않고 생산 및 보급에서의 양적인 차이만을 갖는다. 그러나 노동운동과 조직적 구조의 고착화를 통하여 노동자들의 일상에 시선을 돌리게 되었고 그들의 일상적 문화를 수용하는 노래가 등장하며 큰 변모 양상을 보였다[18].

1990년 전노협의 등장으로 민주노조의 정착화가 시작되었다. 조직의 안정화와 체계성 성립이 확보된 후 노동자의 일상이 유입된 소재들이 생성되었다. 조합 내 교육과 단합을 위한 각종 대회 및 술자리 등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 모임이 많아졌고 이로 인한 일상적 가요가 나타났다. 조합원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생일노래〉와 업무가 끝난 이후 술자리에서의 모습을 담은 〈포장마차〉가 등장하여 큰 소재적 변화를 맞이했다. 이외에도 대중가요적 소재인 사랑·그리움 등의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는 〈사랑과 행복〉과 동지애를 주제로 평화의 세상을 노래하는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햇볕 한 줌 될 수 있다면〉, 추모를 위한 서정적 가요가 등장하는 등 투쟁가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와 소재, 장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모습과 사랑·행복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이를 통틀어 그들의 ‘문화 전반’이 소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상가요와 서정가요 이외에도 새로운 양상의 노래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정치적 모색이 가능해졌던 당시 노동운동에 걸맞게 사회와 정부를 비판하는 풍자가요의 등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과 〈달동네의 부푼 꿈〉은 노동자들의 고달픈 현실을 사회적 문제와 함께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노2김가〉, 〈영삼이의 일기〉는 제5, 6공화국의 당시 집권 정당 대표와 지도계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사회비판적이다. 이와 같은 노골적인 풍자가요는 당시 상황에만 불릴 수 있는 소재의 시의성으로 비교적 짧은 생명이 단점이다. 하지만 이는 이전 풍자가요가 개사곡에 그쳤던 것에 반해 새로이 제작함으로써 변화적 의미를 갖는다[19].

3. 본론

3.1 가사에 따른 주제와 소재 변화

3.1.1 주제

먼저 연구 대상 18곡의 가사에서 나타난 주제는 다음과 같다.

Table 2. The Main and Detailed Subjects of the Lyrics

Detailed Subject	Number (ea)	Percentage (%)
Emancipation of Labor	1	6
Comradeship·Solidarity	2	11
Social Criticism·Satire	4	22
Daily Labor Pain	3	17
Introspection	1	6
Cherish	1	6
Struggle	3	17
Overcoming Reality	3	17
All	18	100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비판·풍자’가 전체 곡 중 4곡을 차지하여 22 %의 비율로 드러났다. 이외에 ‘일상적 노동애환’, ‘투쟁’, ‘현실극복’이 각각 3곡씩 나타났으며 ‘동지애·연대감’이 2곡, 마지막 각 1곡씩은 ‘노동해방’, ‘자기성찰’, ‘추모’를 주제로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많이 드러난 주제인 ‘사회비판·풍자’는 정치·사회적 문제와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풍자하는 노래인데, 이전에도 노동가요의 풍자가요는 존재하였으나 기존 곡의 가사를 개사·변안하여 사용했던 터라 새로이 작곡되었음에 가치가 있다. 다음은 이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김호철의 작품 〈1노2김가〉의 가사 중 일부이다.

백담사 대머리 청문회 오리발 율화통
 노가리 종필이 영삼 보수 대연합 지탈통
 아-하 아아아아아- 5공이 6공 6공이 3공
 1노 2김이 짹짹 양키 앞에서 짹짹

우리네 노동자가 국회에 들어가
 정치를 합시다 정치를 합시다[20]

위 가사에 사용된 ‘백담사 대머리’와 ‘5공’, ‘노가리’·‘종필이’·‘영삼’·‘6공’은 각각 제5공화국과 전두환 대통령을, 제6공화국과 이후 대통령들을 칭한다. 더불어 ‘5공이 6공 6공이 3공’의 가사는 각 정치 집권당을 구분 없이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전까지 개사곡에서 그친 풍자가요가 명확한 대상을 특정하고 구체적인 비판을 통해 새로이 창작된 점에서 노동가요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실 극복’은 주체가 처한 암울한 현실과 외세로 인한 고통을 이겨내고 건실히 극복하자는 의지에서 비롯되

며 이는 현실이라는 부정적 계기에 의해 가치감정이 한층 강화되고 양양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노동계층의 투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현실 극복'의 주제를 담고 있는 김호철의 작품 중 <사랑과 행복>(김민영 작사)의 가사 일부이다.

행복이란 진정 새장 안의 잠든 새일까
아니야 아니야 정말 아냐 그런건 아닐 거야
거친 풍랑 헤치고 더 높이 나르는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날개일 거야[21]

'행복이란 진정 새장 안에 잠든 새일까'라는 가사는 행복을 새에 비유하며 주체의 부정적인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새장에 갇혀 자유를 박탈당한 채 미동조차 없는 무력한 새의 모습을 통하여 주체의 행복에 관한 의미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곧이어 이를 부정하는 가사가 전개되고 이후 이를 극복하였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거친 풍랑과도 같은 암울한 현실을 이겨내고 불꽃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타오르며 더 높이 나르는 날개라는 가사를 통해 이전의 무력함을 나타내었던 '새'와 비유 대상인 '행복'을 긍정적인 대상으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다음으로 나타난 주제는 '일상적 노동애환'이다. 노동환경의 고달픔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비롯된 삶의 애환이 노동자 대중의 일상을 통해 드러난 정서이며 당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를 잘 드러내는 곡인 <포장마차>는 노동자의 일상과 더불어 정치적 풍자까지 동반하고 있어 그 주제를 고찰할 수 있다. 다음은 해당 곡의 가사 중 일상적 노동애환의 주제가 드러난 부분을 발췌한 일부이다.

닭똥집이 벌벌벌 닭다리 덜덜덜
잔업철야 지친 몸 소주로 달래네
비지땀이 뿜뿜 열나게 돌아도
요놈의 노동자 살림은
발바닥이 박박박 닳도록 뛰어도
앞으나 서나 제자리[22]

고된 노동 이후에 포장마차에서 회포를 푸는 일상을 그리고 있으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노동자의 삶을 빗대어 그 애환을 담고 있다. 또한 '요놈의 노동자 살림은', '앞으나 서나 제자리'의 가사를 통해 앞서 살펴보았던 '사회비판·풍자'의 주제 또한 보여지고 있어 노동자 주체 노래에 수반된 다원적 주제 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3.1.2 소재

앞서 언급한 18곡의 가사에서 나타난 주요 소재는 다음과 같다.

Table 3. The Major Material of the Lyrics

Major Material		Number (ea)	Percentage (%)
Personal Emotion	Loning	1	6
	Love	2	11
Spatial background		3	17
Object-Physical		1	6
Symbolic Figure		3	17
Utopia		1	6
Daily Life		2	11
Nature-Animal		2	11
Consciousness of Resistance		3	17
All		18	100

위 표를 보면 특이 양상을 보이는 소재 없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3곡씩 집계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띠는 소재는 '공간적 배경', '상징적 인물', '저항의식'이며 다음으로 개인의 감정 중 '사랑'과 '일상생활', '자연·동물'이 각각 2곡씩 집계되었다. 마지막으로 1곡씩 나타나는 소재는 개인의 감정 중 '그리움', '사물·신체', '이상향'이다. 이 중 살펴볼 소재인 '공간적 배경'은 특정 공간을 배경으로 사용하여 그들의 주제 의식을 피력하기 위한 전달 장치로 사용되었다. 다음은 이가 잘 드러나는 이전의 <달동네의 부푼 꿈> 가사 중 일부이다.

월세방 전세방 떠다니는 우리 신세
노동자 한 푼 두 푼 모아 저축도 해봤지
임대 주택에 꿈을 키우며 희망도 가져봤지[23]

위 곡은 제목과 가사에서 등장하는 '월세방', '전세방', '임대 주택'과 이 모두를 상징하고자 하는 '달동네'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소재로 차용하고 있다. 또한 삶을 영위 함에 있어 필수 요소로 작용하는 '의식주'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기존 노동가요에서 전반적인 배경 소재인 '농성에서의 교섭 장면' 외에 일상적인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어 변화적 가치를 갖는다. 다음은 개인의 감정 중 '사랑'을 소재로 삼은 노래인 김호철의 <참사랑> 가사 일부이다.

바람 불어도 눈보라 쳐도 그대 당신은 내 사랑
우리 새 세상 만들 때까지 우리 변치말고 투쟁하자고[24]

위 가사에서 사용된 사랑은 대중가요에서 흔히 등장하는 소재인 연인들의 사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전에 동지와 투쟁을 향한 사랑을 외쳤던 전투적인 투쟁가에서 벗어나 애뜻한 사랑을 노래하는 서정적인 분위기로 변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새 세상을 위해 투쟁을 약속하는 부분은 주제 의식과 같이 복합적인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보여져 노동가요의 근간이 되는 의식과 그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 중 조합원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모습이 소재로 사용된 〈생일노래〉를 통해 일상이 유입된 노동가요의 변화적 특징을 관찰해볼 수 있다.

3.2 음악적 특징

본고는 연구 대상 18곡의 음악적 특징을 파악함에 있어 가장 변화적 특이점이 발견된 장르와 음악 스타일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가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선율의 양상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음악의 장르와 스타일에 있어 이전의 노동가요와의 확연한 차이점이 보이는 특징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리듬의 양상 또한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율의 양상에 있어서는 음계 또한 알아보았는데, 이는 '5음음계'와 '7음음계', 그리고 5음음계가 전반적으로 진행하면서 7음음계 양상이 부분적으로 분포된 '5음음계 강조와 부분적인 7음음계의 혼용'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노동가요의 변화적 양상 중 음악적인 특징을 고찰하여 그 의미를 논 의해보고자 한다.

3.2.1 음악의 장르와 스타일

노동가요의 음악적 변화 요소 중 가장 큰 기준은 장르와 스타일에 있다. 일상적 소재가 유입되기 이전의 노동가요는 투쟁을 고양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다수가 단조 행진곡풍의 양상을 보여 씩씩하고 절도 있는 노동운동의 모습을 형상화했다[25]. 특히 단조 행진곡풍의 대표적 노래인 김호철의 〈파업가〉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대변하고 노조의 단결과 투쟁 의지 등을 직설적으로 반영하는 최초의 노래로 꼽히기도 한다[26].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상적 소재가 유입되기 시작한 이후 트로트나 발라드 등 대중가요 풍의 노래가 등장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다음은 연구 대상 18곡의 각 장르와 음악 스타일을 분석한 표이다.

Table 4. The Distribution of Genres or Musical styles

Genre or Music Style	Number (ea)	Percentage (%)	
Rock	1	6	
Ballad	8	44	
Trot	3	17	
March Style	1	6	
Calypso	1	6	
Polka	1	6	
Gukak	Jajinmori	2	11
	Huimori	1	6
All	18	100	

위 표에서 44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르는 '발라드'이며 그 이후 '트로트'와 '국악'이 각 세 곡씩으로 17 %씩 집계되었다. 나머지 장르 중 '락'과 서양 민속 음악인 '칼립소', '폴카'가 각기 한 곡씩 고르게 사용되었으며 이전 노동가요의 대다수인 행진곡풍 노래 또한 한 곡으로 드러났다.

정경은의 『한국현대민중가요사』에서는 학생층과 노동계층은 음악적 감수성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는데, 장조 서정가요나 화려하고 복잡한 투쟁가를 선호했던 학생들과 달리 노동자들은 '발라드', '트로트' 같은 귀에 익은 선율과 단순하고 소박한 행진곡풍을 좋아한다고 하였다[27]. 다음은 트로트 풍의 노래인 〈진짜 노동자 3〉의 리듬 형태이다.



Fig. 2. Rhythm of Drum in the 〈Jinja Nodongja 3〉

4분의 4박자 기준 144템포로 빠르고 경쾌한 분위기이며 하이햇이 4분음표로 쪼개지고 1·3박에 킁이, 2·4박에 스네어가 연주되면서 강조형 리듬의 형태를 띤다. 또한 위 악보에 표시된 (a)에서 3&에 전체 악기의 브레이크가 나오는데, 이어 나오는 4박까지 지속되어 당김음의 효과를 나타낸다. 해당 특징은 악곡의 네 번째 마디마다 전반적으로 나타나며 대중가요 적인 요소를 겸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노동가요에서의 대중가요 양상과 사용은 노동자들의 일상과 감수성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장르와 음악 스타일 또한 노동가요의 변화적 요소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3.2.2 선율의 양상

노동가요와 같은 운동권가요는 향유층의 정서적 해석과 공감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외부로 표출하는 데 목적을 둔 노래이다. 이에 가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음악적 요소를 하나의 '장치'로 두고 있는데, 이 중 가사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은 바로 '선율'이다.

먼저 선율적 특징 중 음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 18곡에 차용된 음계는 '5음음계', '7음음계', '5음음계의 강조와 부분적인 7음음계의 혼용'으로 나누어진다. 다음은 전체 곡에 각각 차용된 음계를 나타낸 표이다.

Table 5. The Key and Scale of the Songs

Key	Title	Scale (th)	Number (ea)	
Minor	Pojangmacha (포장마차)	5	3	
Minor	Daldongne-eh Bupun Kkum (달동네에 부푼 꿈)	5		
Major	Sarang-gwa Hangbok (사랑과 행복)	5		
Major	Chamsarang (참사랑)	7		
Major	Sang-il Norae (생일노래)	7		
Major	Bumonimkke (부모님께)	7		
Minor	Kkottdaji 1 (꽃다지 1)	7		
Minor	Kkottdaji 2 (꽃다지 2)	7	10	
Minor	Woori-eui Noraega ee Geuneuljin Ttang-eh Haetbyut Hanjum Doilsu Itdamyun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햇볕 한 줄 될 수 있다면)	7		
Major	Jeo Pyungdeung-eui Ttang-eh (저 평등의 땅에)	7		
Major	Junhwa-card Han Jang (전화카드 한 장)	7		
Minor	Yeolsa-eui geu Tteutdaero (열사의 그 뜻대로)	7		
Minor	Jinjja Nodongja 3 (진짜 노동자 3)	7		
Minor	Gerkuro Doraganeun Sesang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5+7		
Minor	1No2Kim-ga (1노2김가)	5+7		
Minor	Youngsami-eui Ilgi (영삼이의 일기)	5+7		5
Minor	Kkeutnae Salira (끝내 살리라)	5+7		
Minor	Yeobo Jeongmal Sarang Haeyo (여보 정말 사랑해요)	5+7		

위 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7음음계'로 이루어졌으며 '5음음계'를 활용한 양상 또한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5음음계를 활용한 양상에서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으나 대부분 구전민요의 선율적 특징을 차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곡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는 노동가요가 민족 음악의 형식을 계승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알려져진다[28]. 다음은 5음음계를 활용한 혼용 형태 음계 중 가장 특징이 잘 드러나는 <1노2김가>의 후렴구 악보이다.



Fig. 3. A Mixture of Two Scales, 5th and 7th, with a 5th Scale Accentuation in the<1No2Kim-ga>

Fig. 3에서의 <1노2김가>는 마단조(Em Key) 5음음계를 사용하여 선율을 구사하고 있다. 해당 선율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윗옳음인 (a)가 사용되면서 7음음계가 혼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끝내 살리라>, <여보 정말 사랑해요>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실제로 해당 곡들이 민요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편곡되었음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선율의 전개 양상 중 연구적 특이점을 분석한 결과이다. 서로 유사한 형태를 띠는 선율적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먼저 8분음표-4분음표-8분음표를 나란히 사용하여 전후 음표의 길이를 통한 선율적 강조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형태는 선율의 강조로 인해 얻는 강한 인상으로 효과적인 가사 전달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음표 길이를 활용한 리듬의 활용으로도 볼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같은 특징이 잘 나타나는 <끝내 살리라>와 <영삼이의 일기>의 일부를 발췌한 악보 일부이다.



Fig. 4. The Melodic Characteristic in the <Kkeutnae Salira>



Fig. 5. The Melodic Characteristic in the <Youngsami-eui Ilgi>

Fig. 4와 Fig. 5의 표식 마디를 보면 음표의 길이가 '8분음표-4분음표-8분음표'의 양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강박에 비교적 짧은 길이의 음표가 배치되어 직후 음표의 길이를 당기는 효과를 주며 각 마디의 가사인 '끝내 살리라', '노동자 한 가슴', '아이구야 빌어먹을', '한 때는' 등을 강조하는 듯한 효과를 지닌다.

이와 같은 양상은 주체의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사로 활용하고 이를 선율의 양상을 통해 장치로서 차용했음을 알 수 있다.

4. Discussion

본 연구에서 살펴본 1990년대 노동가요의 음악적 변화 양상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의 결성과 조합의 안정기로 인한 노래의 '일상화'로부터 나타난다. 친목을 목적으로 한 각종 단합대회와 술자리 등의 집단적 모임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소재들을 다루기 시작했으며 대중가요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모적이고 처절한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치사회와 현실에 대항한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가사를 통해 이전과는 사뭇 다른 적나라한 풍자가요를 새롭게 창작했음을 확인했다. 해당 특징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노동가요 노래책에 수록된 일상가요·서정가요·풍자가요 18곡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가사와 음악 분석을 통해 내제된 주제 의식과 장르·음악 스타일·선율의 특징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 장에서는 노동가요를 다룬 선행 연구와 함께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가사 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체 18곡에서 도출된 주요 주제는 '사회비판·풍자'와 '현실극복', '일상적 노동애환'이다. 이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명으로 결부되는 일상적 결핍에서 벗어나기 위한 위기저항의식이며 이는 곧 자본 세력과 지배계층을 향한 적대심에서 비롯되었음 또한 알아볼 수 있다. 해당 주제와 함께 사용된 소재로는 '공간적 배경'과 '상징적 인물', '저항의식'이 도출되었으며 이외에 사랑과 그리움을 나타내는 '개인의 감정'과 '일상 생활', '이상향' 등이 있었

다.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공간적 배경'은 인간에 있어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의식주 중 '주'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소재로 다루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노동자들의 일상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 이전의 투쟁가가 성행했던 노동가요를 토대로 보았을 때 명확한 변환점으로 보여진다.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도 동일한 흐름을 찾아볼 수 있는데, 노동가요의 가사를 다루었던 선행 연구 중 강용식의 「민중가요의 역사적 의미에 대하여: 민중시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에서는 1988년 이전에는 “노동계층이나 노동현장의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거의 없거나 약한 것들이었으나 이후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수용한 노래들이 폭발적으로 제작되었다” 하였다. 또한 “일상공간의 열림으로 인해 노동계층의 일상을 담은 일상가요와 서정가요가 다시 제작되었다” 저술했다[29]. 이와 같이 1990년대에 접어드는 노동가요가 일상공간의 개방과 수용으로부터 변화를 맞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구체적인 주제와 소재를 파악해봄에 있어 노동가요의 주제적 변화를 상세히 관찰해볼 수 있다.

본고에서 파악한 노동가요의 음악 요소의 변화는 이전의 주를 이루었던 단조 행진곡풍의 노래가 아닌 대중가요적 장르의 등장이기 때문에 장르와 스타일의 특징적인 양상을 관찰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 또한 변화한 노동가요에서 가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선율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연구적 의의를 두었다. 선율의 양상 중 먼저 음계에서는 대중가요 전반에서 사용되는 7음음계의 사용이 가장 많았다. 특히 5음음계를 활용한 양상 또한 다수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 이는 노동가요 노래책인 전노협의 『이제 우리의 노래를』에서도 언급하는 '민족음악의 계승' 의도가 보여져 노동계층의 의식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30]. 선율의 전개 양상에서는 음표의 길이를 활용한 선율적 강조가 나타났는데, 이는 강박에 배치된 짧은 길이 음표가 직후 음표를 당기는 듯한 느낌을 주어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효과를 알아볼 수 있었다. 이는 변화한 노동가요의 가사 전달을 위한 선율 차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타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선율의 특징점을 다루지 않아 본 연구의 가치와 독창성을 확립해볼 수 있었다.

5. 결론

역사적으로 목적이 있는 노래는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민족의 정서를 아우른다는 특성을 갖는다. 노동자의 의식이 수반된 노동가요 또한 그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노래이며, 특히 일상공간의 수용으로 비롯된 노동가요의 변화는 그들의 문화 전반이 투영되어 노래로 시대를 일깨우고자 했던 음악사적 산물이다.

본 논문은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맞은 노동가요의 음악적 변화를 관찰하고 그 배경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며 민중가요의 하위 범주로만 다루어졌던 노동가요의 독립적인 주체와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대중음악 요소의 차용에서 비롯된 변모 양상을 통해 향후 노동가요의 대중화를 모색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하여 가사에 내포된 그들의 주제 의식을 살펴보고 음악 요소의 특이점을 고찰하여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했다.

음악 요소 중 특히 장르와 음악 스타일에서 대중음악적 특색이 윤곽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발라드’와 ‘트로트’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는 전반적인 대중음악의 장르로서 노동가요의 향후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러나 대부분 가사에서 투쟁이나 저항의식을 내포하는 상투적이거나 관념적인 단어가 사용됨으로써 가사 부분에서의 대중화 모색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용층이 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가사의 양상과 목적의식 또한 분명하기 때문에 대중의 공감을 자아낼 수 있을지가 의문으로 남았다. 연구를 통해 노동가요의 주체와 특성을 명확히 고찰할 수 있었으나 동시에 이로써 마주하게 된 한계의 양면성은 꾸준한 논의와 발전을 요한다.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한다면 향후 노동가요가 당면한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References

- [1] Y.J. Kim, *A Study on the Trend of Protest Songs and Its Social Meaning: Focusing on Protest Songs Since 1980*,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ociology, Daejun, pp.12, 1994.
- [2] W.S. Kang, "A Study of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Minjung-Song: Focused on the Correlativity between Mijung-Poetry and Minjung-song", *Literary Criticism*, Vol., No.21, pp.53-78, 2005.
- [3] K.E. Jeong, *Modern Korean Protest Songs History*, p.288, Lyrical Poetry Publishers, 2010, pp.373.
- [4] J.A. Hong, *A Study on the Popular Music in the 1980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f Education,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Seoul, pp.36, 1996.
- [5] National Labor Union Council, *A Song of Hope 3*, p.4, Moving Book Publishers, 1994, pp.203.
- [6] Y.W. Son, "Why has unions choose confrontational and combative strategies in Korea?: Limits of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nd emergence of duality in union movements", *Social Science Studies*, Vol.20, No.1, pp.40-74, 2012.
DOI: <https://dx.doi.org/10.17787/jsgiss.2012.20.1.40>
- [7] W.S. Kang, "A Study of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Minjung-Song: Focused on the Correlativity between Mijung-Poetry and Minjung-song", *Literary Criticism*, Vol., No.21, pp.53-78, 2005.
- [8] D.H. Choi, "A Statistical Analysis of Modern Korean People's Songs and Its Meaning", *Literacy Criticism*, Vol., No.21, pp.7-51, 2005.
- [9] K.E. Jeong, *Modern Korean Protest Songs History*, p.291, Lyrical Poetry Publishers, 2010, pp.373.
- [10] K.E. Jeong, *Modern Korean Protest Songs History*, p.43-44, Lyrical Poetry Publishers, 2010, pp.373.
- [11] R.H. Kang, *Korean folk songs of the 1970s and 1980s lyrics and music analysis*,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Department of Post Modern Music, Seoul, pp.11, 2019.
- [12] M.B. Lee, "Social Roles of Culture: Music, How Can We Understand It?", *Music and Korea*, Vol.13, No.-, pp.190-211, 1997.
- [13] Y.M. Lee, Seo Taiji and Kkotdaji, p.20, Hanwool Publishers, 1999, pp.84.
- [14] H.K. Kim, *A Study on the Change of Labor Control Character of the Union in the 1980s: Focusing on the view of unionism*,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pp.75, 1992.
- [15] H.K. Kim, *A Study on the Change of Labor Control Character of the Union in the 1980s: Focusing on the view of unionism*,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pp.58, 1992.
- [16] Korean Modern History Dictionary, *The Great Labor Struggle since 1987*, c2005 [cited 2005 September 10], Available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0582&categoryId=62048&categoryId=62048>, (accessed Oct. 30. 2022)
- [17] B.S. Kim, *Development and Popular Appeal of Korean Min-joong Ga-yo*, Master's thesis, Busan University, Art, Culture and Video Media Cooperation Course, Busan, pp.32, 2013.
- [18] K.E. Jeong, *Modern Korean Protest Songs History*, p.260, Lyrical Poetry Publishers, 2010, pp.373.
- [19] K.E. Jeong, *Modern Korean Protest Songs History*, p.260, Lyrical Poetry Publishers, 2010, pp.373.
- [20] C.H. Ahn, *An Iron Laborer*, p.192, National Labor Union Council, 1991, pp.290.
- [21] M.Y. Kim, H.C. Kim, *A True Laborer*, p.170, National Labor Union Council, 1990, pp.360.
- [22] H.C. Kim, *A True Laborer*, p.326, National Labor Union Council, 1990, pp.360.

- [23] G. Lee, An Iron Laborer, p.64, National Labor Union Council, 1991, pp.290.
- [24] H.C. Kim, A True Laborer, p.294, National Labor Union Council, 1990, pp.360.
- [25] B.S. Kim, *Development and Popular Appeal of Korean Min-joong Ga-yo*, Master's thesis, Busan University, Art, Culture and Video Media Cooperation Course, Busan, pp.32, 2013.
- [26] K.E. Jeong, Modern Korean Protest Songs History, p.262, Lyrical Poetry Publishers, 2010, pp.6.
- [27] K.E. Jeong, Modern Korean Protest Songs History, p.216-218, Lyrical Poetry Publishers, 2010, pp.373.
- [28] H.C. Kim, Now, Our Song, p.259, National Labor Union Council, 1993, pp.272.
- [29] W.S. Kang, "A Study of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Minjung-Song: Focused on the Correlativity between Mijung-Poetry and Minjung-song", *Literary Criticism*, Vol., No.21, pp.53-78, 2005.
- [30] H.C. Kim, Now Our Song, p.259, National Labor Union Council, 1993, pp.272.

박 세 원(Se-Won Park)

[준회원]



- 2021년 2월 ~ 현재 :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행정조교
- 2021년 2월 ~ 현재 : 경희대학교 대학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음악학 석사과정)

<관심분야>

실용음악, 작곡

홍 성 규(Sung-Kyoo Hong)

[정회원]



- 2015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학 전공 졸업 (문학박사)
- 2005년 2월 ~ 현재 :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교수

<관심분야>

음악, 작곡, 뉴미디어, 문화콘텐츠